

# 목만중(睦萬中) 노년기 시의 특징 소고

「역사록(櫟社錄)」을 중심으로

이새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국한문학 전공  
sae410@hanmail.net

- I. 머리말
- II. 점희당(漸喜堂)에서의 삶과 노년의 관조
- III. 노년기 시의 특징
- IV. 맺음말

## I. 머리말

여와(餘窩) 목만중(睦萬中, 1727-1810)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인물로 1759년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곧 물러나와 10여 년 동안 서울에 거처하며 근기 남인 문인들과 많은 교유를 하며 지냈다. 이후 1786년에 문과 증시에 장원 급제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관직에 머무르며 관료문인으로서 생활하였다.

목만중의 문집인 『여와집(餘窩集)』은 시와 산문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는 시대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시작품이 2,000여 수에 달한다. 그 가운데 「역사록(櫟社錄)」에 수록된 250여 제(題)의 시는 목만중이 만년에 창작한 작품에 해당한다. 「역사록」에 수록된 작품들은 이전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에 비해 내용상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목만중은 노년의 삶에 대한 성찰과 죽음을 앞둔 복잡한 감정들을 시를 통해 진솔하게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시적 정서를 기존 연구에서는 목만중이 함께 교유하였던 문인들의 죽음과 부인과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죽음을 차례로 경험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보았다.<sup>1)</sup>

물론 늙음이나 노년의 삶은 목만중 외에도 많은 문인이 시창작의 제재로 빈번하게 삼았으며, 노년을 소재로 한 시나 시어로 ‘노(老)’가 등장하는 경우는 「역사록」뿐만 아니라 목만중이 40-50대의 나이에 창작한 시들을 모아둔 「백사록(白社錄)」에서부터 꾸준히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록」을 기점으로 목만중은 기존의 관습적인 노년의 슬픔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삶에서 얻은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시에 투영하고 있어 목만중의 노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목만중이 교유관계를 맺는 인물도 변화하고, 그의 사회적·정치적 위치도 달라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목만중의 경우 만년의 시가 다른 시기에 창작한 시와 비교하였을 때 시적 소재나 시체(詩體)의 선택 면에서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이는 목만중의 작시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박희인, 「餘窩 睦萬中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58쪽.

노년기에 창작한 한시에서 등장하는 양식적·정서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김동준<sup>2)</sup>은 목은 이색의 노년기 시에 나타난 일상성에 주목하였으며, 박혜숙<sup>3)</sup>은 다산 정약용의 노년기 시에 주목하여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라는 양식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된 노년기 시들은 노년의 자신을 수궁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이색은 일상을 시화(詩化)하였으며, 정약용은 양식적 변화를 수반하여 노년에 대한 개인의 정서를 표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목만중의 노년기 시도 노년을 수궁하면서 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성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목만중의 노년기 시가 지니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년 시에 대한 연구 성과와 목만중의 한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역사록」<sup>4)</sup>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목만중의 노년기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을 선정하고 관련 작품에 담긴 목만중의 내면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기존의 ‘죽음’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던 목만중의 노년기 삶과 작품에 대해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의 시세계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현재 목만중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며, 연구 성과도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sup>5)</sup>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2) 김동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한시(漢詩)에 나타난 노년(老年)의 일상(日常)과 시적(詩的) 형상(形象)」, 『韓國漢詩研究』 21권, 한국한시학회(2013).
  - 3) 박혜숙, 「정약용의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와 노년의 양식」, 『민족문학사연구』 41권, 민족문학사학회(2009); 박혜숙, 「다산 정약용의 노년시(老年詩)」, 『민족문학사연구』 44권, 민족문학사학회(2010).
  - 4) 「櫟社錄」외에 목만중이 70대에 지은 작품들이 수록된 「從心錄」도 있지만, 輓詩에 해당 하는 작품이 많아 목만중의 노년기 삶에 대해 고찰하기에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從心錄」은 제외하였다.
  - 5) 현재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목만중의 시사 활동이나 기행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백승호, 「18세기 南人 문단의 詩會-蔡濟恭·睦萬中을 중심으로」, 『관악어문논집』 29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2004); 이새롬, 「睦萬中の 詩會 활동과 詩世界」,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김중하, 「餘窩 睦萬中 紀行詩 연구: 經世意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 II. 점희당(漸喜堂)에서의 삶과 노년의 관조

「역사록」 서문(序文)에서 목만중은 만년의 시들을 모아 역사(櫟社)라 명명한 것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목만중이 자신의 만년에 대해 어떤 시각을 지녔는지 엿볼 수 있다.

장석(匠石)이 역사(櫟社)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재목감이 못 되는 나무이러서 쓰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壽)를 누리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에 ‘나무(木)’에 ‘즐거움(樂)’을 따르고 있으니, 천수를 보존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요. 살아 있을 때엔 사(社)에 의지해서 살았으니 바로 하늘이 준 행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취하여 이 글의 이름으로 삼았다. 갑자년 봄, 78세의 목만중 노인이 서곽(西郭)의 점희당에서 쓰다.<sup>6)</sup>

서문의 첫 구절은 『장자(莊子)』의 〈인간세(人間世)〉의 “역사의 상수리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살 수 있었다(無所可用 故能若是之壽)”는 말을 정리한 것이다. 쓸모없음에서 장수라는 가장 큰 쓸모를 얻어낸 ‘역사’를 활용하여 권명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자칫 목만중이 자신의 노년의 삶을 자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 78세였던 목만중은 가까웠던 신평수, 이현경, 채제공, 정범조의 죽음을 차례로 겪으며 홀로 긴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목만중과 교유관계를 맺었던 문인들이 일찍부터 관직에 올랐던 것과는 달리 목만중은 60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관직에 오른 후에 유배 생활을 겪기도 하며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다른 문인들과 비교하여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 ‘무소가용(無所可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목만중은 ‘역사’의 의미를 글자의 구성을 재풀이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그는 ‘역(櫟)’의 글자를 풀어 상수리나무라는 뜻의 ‘역(櫟)’은 나무 ‘목(木)’에 즐거움 ‘락(樂)’자를 결합한 형태로, 오랜 시간 동안 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낸 글자라고 본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社)’는 삶을 ‘사’에 의탁해서 살았기에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6) 『餘窩集』 권9,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序文〉. “匠石爲櫟社解曰, 散木也, 無所可用, 故若是之壽.’ 余謂木之從樂, 樂其保天年也, 生托於社, 適有天幸耳. 遂取而名吾錄, 甲子春, 餘窩七十八歲老人書于西郭之漸喜堂.”

일종의 조건을 나타내는 글자로 보았다. 쓰일 곳은 없지만 몸을 기탁할 만한 곳이 있었기에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글자를 풀이하며 목만중은 천수를 누리는 일은 홀로 남겨진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장자』의 〈인간세〉에서 나무가 장석의 꿈에 나타나 역사가 재목으로서나 열매 나무로서는 쓸모가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리지 않고 그 천수를 누릴 수 있었음을 언급한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역사의 의미를 수용하면서 목만중이 자신의 노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쓸모없는 나이인 노년이 되어 걸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천수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목만중의 뜻이 드러난다.

이처럼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목만중이 젊은 시절에 비해 여유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목만중이 노년의 삶을 보낸 곳은 ‘점희당(漸喜堂)’으로 「역사록」의 서문과 수록된 시 대다수를 이곳에서 지었다. 점희당은 목만중의 증조부인 목천성(陸天成, 1630-1687)이 두일당(逗日堂) 벽에 제명한 두보의 시구 “점점 교유가 끊어짐이 기쁘구나, 숨어 사는 거처에는 이름을 달지 않겠네(漸喜交遊絕, 幽居不用名)”에서 이름을 끌어온 것이다.<sup>7)</sup> 증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도 은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목만중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목만중은 〈점희당기(漸喜堂記)〉에서 젊은 시절에 교유를 하거나 벼슬살이를 하며 바쁘게 보내던 것에서 벗어나 홀로 편안히 지내니 증조부의 뜻에 합치하여 이에 따라 당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다.<sup>8)</sup> 또한 목만중은 도연명의 뜻을 본받아 교류를 끊고 사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sup>9)</sup> 그가 이처럼 교류도 없이 은거의 뜻을 지닌 것은 주변 문인들과 정치적인

7) 『餘窩集』 권13(한국문집총간본), 〈漸喜堂記〉. “昔我曾王父竹坡府君手題壁上曰, ‘漸喜交遊絕, 幽居不用名.’ 工部語也.” 두보의 시 〈遣意〉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嘯枝黃鳥近, 泛渚白鷗輕. 一徑野花落, 孤村春水生. 衰年催釀黍, 細雨更移橙. 漸喜交遊絕, 幽居不用名.”

8) 『餘窩集』 권13(한국문집총간본), 〈漸喜堂記〉. “余少喜翰墨之游, 交道頗廣, 貧不知凍餒之可憂, 仕不知潦倒之可羞, 唯以詡詡徵逐爲事, 垂四十年而老及之. 虛名古人所忌, 褊性衆謗所集, 桑榆匪遠照之景, 寒灰無可附之焰, 於是客榻常樓塵矣. 端居落穆, 深有契於曾王父題壁之意, 取以名其堂.”

9) 『餘窩集』 권13(한국문집총간본), 〈漸喜堂記〉. “唯淵明之息交絕游, 差足自喜耳.”

뜻을 달리하면서 생긴 어려움이<sup>10)</sup> 원인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이가 들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목만중은 젊은 시절 자신을 옳아때던 정치적 문제나 교유 문제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스스로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점희당(漸喜堂)의 작은 병풍에 쓰다〉

높은 명성 이루지 못함을 옛사람들 부끄러워했지만	脩名不立古人羞
속세에서 이룬 부질없는 이름으론 도리어 근심스럽네.	缺界浮名轉益憂
은일하여 벼게에 기대 사는 것 드러내기 싫고	已厭迷藏欵枕見
부귀 좇아 마부 일 마다하는 것이 싫지도 않았다네.	非嫌富貴執鞭求
평생토록 공의를 어찌 멀리 하리오?	百年公議何曾遠
모든 일 마음 비우면 그저 자유로운데.	萬事虛心只自由
빈 골짜기 울리는 발자국 소리 점점 줄어드니	空谷磴音聞漸少
그윽한 초당에서 두건 젖히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네.	高歌岸幘草堂幽 <sup>11)</sup>

만년에 한가로움을 추구했던 목만중의 삶이 잘 드러난 시 중의 하나이다. 선인들에게 입신양명은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이자 지향점이었다. 목만중도 이전에는 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입신양명을 추구하였으며,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명에만 매달렸던 삶이 지나고 보니 그 시절은 근심만 가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젊은 시절의 바쁜 삶은 함련과 경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부귀를 위해서라면 말고빠라도 잡겠다고는 논어의 구절을 끌어와 부귀를 지향하는 일을 꺼리지도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마음 한번 비우면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건만 젊은 시절에는 세상일에 매달려왔던 자신을 고백하듯 시를 통해 묘사한다.

한편, 속세에 얽매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만년의 삶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현재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홀로 점희당에서 한가롭게 보내는 시간만 만족스러울 뿐이다. 이처럼 점희당을 시의 제재로 삼은 경우 대다수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처음 점희당의 기문을 써달라고 체제공에게 부탁하였으나 체제공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거절하였기에 스스로 당의 기문을 짓는다고 〈漸喜堂記〉에서 밝히고 있다. 『餘窩集』 권13(한국문집총간본), 〈漸喜堂記〉. “余與樊巖相交最厚，索其爲記，始欣然許之，他日曰吾文垂成，客有見而云云者奈何。余笑曰唯唯，余之不能強公文字，亦猶公之不能強余交游也，亦各從其所喜而已。歸語釋孫曰取吾筆來，吾自記吾堂。”

11) 『餘窩集』 권9,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題漸喜堂小障〉.

시에서는 찾아오는 이도 없이 홀로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목만중은 후손이나 후진들과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쓸쓸하지만은 않은 노년을 보냈다. 여전히 많은 문인과 함께 근교에서 유람을 즐기며 느끼는 한적한 정서를 시로 남겼다. 또한 후배 문인들이 접희당으로 목만중을 찾아와 시를 주고받았는데, 간혹 후배 문인이 관직으로 인해 멀리 떠날 때면 목만중이 송별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접희당에서 많은 문인과 교류가 있었는데, 1804년 7월 16일에 목만중이 접희당에서 20여 명의 문인을 초대하여 시를 지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시 참여한 문인으로는 60-70대의 유광진·홍극호·이지형·목조영·이정서부터 60대 이하로 최홍진·신현록·채홍운·이재기·홍희운·이원규·권의·심규로·이유하·이영하·강준흠·홍명주·심영석 등이 있다. 성정진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참여하였으며, 목만중의 아들인 목인규와 손자 목대석도 자리에 참여하였다. 참석한 이들은 두보의 시를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sup>12)</sup> 이후 채홍운과 이재기, 강준흠 등을 비롯한 후배 문인들은 하루 더 머물며 시를 지었다.<sup>13)</sup> 다음 시는 7월 16일 모임에서 지은 시이다.

노쇠하고 병든 내게 남은 건 무엇인가?	衰疾吾何有
그대들은 받은 은총 참으로 빛나거늘.	諸君實寵光
텅 빈 창가에 석양빛 비치고	虛樞延返照
성긴 나무 사이로 산들바람 불어오네.	疎樾送微涼
역로 따라 먼 길 떠나가니	驛路行應遠
산과 강 바라보며 그리움 더욱 유장하리.	關河思正長
들쭉날쭉 산과 계곡 굽이굽이로	參差山澗曲
말 타고 돌아가는 길 석양빛 비치겠지.	歸騎犯曛蒼

12) 『餘窩集』 권9,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七月既望, 會于漸喜堂. 七十以上鄰老, 權人和(柳), 戊申生. 三秀柳上舍時晦(光鎮), 己酉生. 淡所洪侍郞稚恒(克浩), 辛亥生. 後巖李侍御楚白(之珩), 癸丑生. 警濱陸文川景遠(祖永), 甲寅生. 兼窩李延安龜瑞(廷書), 乙卯生. 六十以下, 崔廣文錫章(鴻晉)·申金吾郎用晦(顯祿)·蔡正字文字(弘韻)·李侍御善始(在璣)·洪生而述(義允)·李寢郎聖一(遠揆)·權都事景游(倚)·沈承宣華五(奎魯)·李殿中景學(游夏)·李拾遺伯游(泳夏)·姜檢討百源(浚欽)·洪拾遺自天(命周)·沈國子君實(英錫), 齒各差池. 而成諫議仲周(鼎鑰)新除嶺府, 委訪叙別. 家兒仁圭·孫兒台錫與筵. 拈杜韻各賦一篇〉.

13) 〈客散, 錫章·文字·善始·聖一·景游·景學·百源留宿, 拈陸韻共賦. 月下聞鄰家鶴唳, 七言第三韻蟬字, 必用鶴字屬對, 詩令也〉, 〈翌夜月出聞鶴唳, 用前韻依舊令奉善始·百源〉[『餘窩集』 권9,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5번째 구는 성정진이 벼슬에 올라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6번째 구는 의주 부윤으로 떠난 홍의호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sup>14)</sup> 모임에 참석한 유광진은 특히 목만중이 만년에 들어서면서 교유가 잦았던 인물로, 목만중의 손자인 목태석의 외조부이기도 하다. 홍극호와 목경집, 최홍진도 목만중이 만년에 자주 시를 주고받았고 근교에 함께 유람했던 문인들이 다. 특히 홍극호와 최홍진이 목만중과 함께 뒷산에 놀러가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15)</sup> 목만중이 홍극호에게 두 차례 회문시(回文詩)를 지어줄 정도로<sup>16)</sup> 두 문인은 문학적으로도 심도 있는 교유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홍진은 대표적인 안산 문인이며, 목만중과 시를 주고받을 때 주로 두보나 육방옹의 시를 차운하였다.<sup>17)</sup>

이지형은 이헌경의 문집인 『간옹집』의 발문을 남겼으며, 목조영은 목만중과 친척관계로 안산 문인 중의 한 사람이다. 이정서는 체제공과 정범조뿐만 아니라 목만중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인물이다. 강준흠은 그의 아버지인 강세정과 목만중의 친분이 그에게까지 이어졌다. 또한 심규로는 청년 시절부터 목만중이 서울 근교에서 주최한 시회에 참여하며, 목만중이 만년이 되기까지 꾸준히 교유해온 인물이다. 심규로는 정약용과도 친분이 있어 죽란시사에도 참여하고 체제공의 신원에 힘쓰기도 하였다. 심규로와 목만중의 교유가 꾸준히 이어진 사실은 천주교로 비롯된 사건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교유관계와 친분이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sup>18)</sup>

모임에 참여한 인물들이 목만중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남인문인

14) 시 말미에 “五句屬仲周，六句懷養仲也”라고 주가 달려 있다.

15) 『餘窩集』 권9,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重陽携淡令·磬叔·蔡姪, 登屋後山阿, 得邊字〉.

16) 목만중이 홍극호에게 지어준 회문시는 〈淡令在季氏巴陵縣齋, 戲用廻文體贈之〉, 〈淡令用韻廻文見投, 疊酬〉가 있다(『餘窩集』 권9,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17) 목만중과 최홍진이 함께 지은 차운시로는 〈沙南至, 與三蔡拈次杜韻〉, 〈同蔡君拈次陸韻〉, 〈重陽前一日, 與蔡君共用陸韻〉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증시나 함께 지은 시로 〈蔡君夜直騎省, 有作見投. 余通籍垂五十年, 宦業甚涼, 唯於內省宿直, 頗久且多, 追感和贈〉, 〈雨後夜坐, 與蔡君共賦〉, 〈蔡君將還鄉賦贈〉가 있다(『餘窩集』 권9-10,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18) 목만중은 심규로 외에도 친서파로 알려진 한정운과도 만년까지 시를 주고받았다. 한정운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자 목만중은 전송시를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예컨대 〈贈別韓士凝出牧耽羅〉, 〈寄贈濟牧韓士凝〉, 〈臘劑寄濟牧韓士凝, 戲贈一絕〉 등의 시가 있다(『餘窩集』 권9-10,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및 안산 문인이라는 사실을 통해 목만중이 만년에도 교류관계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남인 문단 내에서의 위상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목만중이 중장년 시절부터 친분을 맺어오던 채홍리와 이기경은 꾸준히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채홍리는 목만중이 시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때부터 오랜 기간 교류관계를 맺었던 인물로, 그가 1806년에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목만중과 많은 시를 주고받았다.<sup>19)</sup> 이기경은 목만중이 한참 관직에 머물던 1790년대부터 교류가 있던 인물이다. 만년에 목만중은 이기경에게 시를 보내며 친분을 유지해왔다.<sup>20)</sup>

또한 만년에 목만중은 점희당에서 가문 사람들과 자주 모임을 열었다.<sup>21)</sup> 그는 혈육의 정에 많이 기대면서 동시에 쇠락해가는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려는 뜻을 내비친다. 목만중의 집안은 오랫동안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고, 그 자신도 만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목만중의 본관인 사천 목씨 내에서도 지중추부사를 지낸 목만중과 의금부 지사를 지낸 목인배를 제외하면 종2품 이상 관직을 맡았던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자신의 손자가 과거에 급제하자 이를 축하하는 시를 쓰기도 하였으며, 점희당에서 손자와 그의 벗들을 불러 모아 시를 쓰는 모임을 자주 갖게 하였다. 특히 부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입장에서 목만중은 손자에게 기대가 컸던 듯 「역사록」에 수록된 시들 중 손자에 관한 내용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손자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sup>22)</sup>

19) 〈夜坐述興，寄贈岐川，兼示淡所〉，〈奉賀岐川耆社〉，〈三月二十二日巳刻，已過岐川，遂深深著土中矣。病枕惘然有作〉 등의 시가 목만중이 채홍리에게 지어준 것이다『餘窩集』 권9,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20) 예컨대 〈贈別李中丞休吉諱端川〉，〈寄休吉〉，〈寄贈休吉〉 등의 시가 있다『餘窩集』 권9-10,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21) 〈吾宗少，無論疏近貴賤，相見必歡欣歎曲，以致敦睦之意，山南之泗川縣，是吾鼻祖起家之地。本貫與傍郡邑，豈無宗人之散處者，而孿衰微不振。鮮能自通於京師漆原之宗，基錫年未滿弱冠，慨然裹足入都，抱其家傳系籍 遍謁諸宗老，既歸而復來者三，來必館於我，譜既成携歸，書此以贈〉，〈二月初吉，宗人小集于漸喜堂，拈韻同賦〉와 같은 작품들이 당시 목만중이 종가 사람들과의 모임을 자주 열었던 것을 알려준다『餘窩集』 권9-10,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22) 예컨대 〈新進士放榜日，孿孫兒台錫，族子仁秀拜坡上先廟。路逢李君廷泰，三人自幼同榻，一時中選〉，〈寄孫兒山房肄業〉，〈寄贈孫兒山房肄業〉，〈孫兒登科後，磬濱叔詩以相賀，步韻謝之〉，〈雪後記見，令孫兒和之〉 등의 시가 있다『餘窩集』 권9-10, 「樸社錄」

목만중의 중장년 시기에 비하면 점희당에서 보낸 그의 만년의 삶은 무척이나 단조로웠다. 그러나 목만중은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로 묘사하면서도 나이가 들어서야 즐길 수 있는 생활에 만족하며 작품을 창작하였다. 목만중이 감시복시에 경의(經義)로 급제한 지 60년이 되던 해인 1807년에<sup>23)</sup> 그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며 시를 짓기도 하였다.

〈정월 초하루 달력에 쓰니 점희당의 옛일이다〉

노년에 잘하는 것이라곤 밥 먹는 일이니	老年能事但加餐
할 일 없이 받는 녹봉 관아만 축내는구나.	俸米無端費縣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년 세월 유구함을 모르겠는가	坐致不知千歲遠
가다서다 하다 보면 천지 넓다는 것을 믿게 된다네.	行休自信二儀寬
詩書を 멀리하여도 외려 미련 남지만	詩書閣束猶餘戀
어린이 마당 종종걸음 갈 때면 매번 흐뭇하게 바라보네.	童稚庭趨每笑看
강가에 굽이굽이 물들 봄빛 고개 돌려 바라보니	春色曲江回首地
젊은 시절 살구꽃 안장 앉은 적도 있었지.	弱冠曾跨杏花鞍 <sup>24)</sup>

이미 한 갑자를 보낸 세월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새삼 인지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을 목만중은 현재의 삶과 젊은 시절을 시의 수련과 미련에 각기 배치하여 대비시켜 드러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은 관아의 녹만 축내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늙은이로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시서(詩書)를 멀리하고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한가롭게 살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자손들은 학문을 일깨워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자손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음력 2월이 지나 서서히 봄빛으로 물드는 풍경은 봄처럼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목만중은 60년 전에 자신이 처음 급제한 당시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긴다. 지금은 비록 할 일 없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한때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기도 했던 자신을 회고한다. 그러나 그 추억이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시의 중반부에 현재 처지에 대한

(한국문집총간본) 참조.

23) 『餘窩集』 권14 (한국문집총간본), 〈年譜〉. “二十三年丁卯公二十一歲，二月赴監試覆試，生員三等第六十三人入格.”

24) 『餘窩集』 권19,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元日題曆 漸喜堂故事也(丁卯)〉. 시의 말미에 “今年卽余司馬廻榜”라고 주를 달았다.

만족감을 드러내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가 그리  
 조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세월의 흐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목만중  
 의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하지만  
 이에 대해 자조하거나 안타까움을 내비치지 않고 도리어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역사록」에 남긴 시에서 목만중은 '늙음'에 대해 담담하게 수긍한다.  
 노년의 쓸모없음이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으로 보게 되면서 늙음에  
 대한 직시가 역설적이게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 남게 된다.

그러나 「역사록」 이전에 남긴 시에서 목만중에게 '늙음'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더구나 관직 진출이 늦었던 목만중에게  
 세월의 흐름과 늙음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가 중장년에  
 사회를 주도적으로 열었던 이유도 “오십이 되도록 이름도 나지 않고,  
 배 문질러 보아도 텅 비어 있을 뿐(五十而無聞, 捫腹徒空洞)”<sup>25)</sup>이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에 비해 이룬 것이 없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목만중이 중장년에 모임을 갖게 되면서 남긴  
 시에는 신체의 늙음은 사회나 유람에 방해되는 존재로 묘사된다.

〈여름날 첫 비가 내릴 때 서쪽 언덕의 숲 아래에 모여〉<sup>26)</sup>에서는  
 “이 몸 늙었으나 다리에 힘이 남아, 몸은 이미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서 있네(吾衰猶脚力, 身已最高峰)”라고 하며 하마터면 쇠약한 신체로 모임  
 에서 뒤처질 뻔했지만 이를 극복한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드러낸다.  
 이처럼 당시 목만중에게 '늙음' 혹은 '노쇠한 신체'는 극복의 대상이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지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늙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사록」 이전 시기까지의 시가 있는 「종심록(從心錄)」에  
 서도 유지된다. 1803년에 시사를 미리 약조하며 쓴 시의 미련에서는  
 “우습구나! 서지원의 노인이, 애써 백발을 하고 술자리 마주하고 있음이  
 (笑殺樓遲園衰叟, 強將華髮抗尊前)”<sup>27)</sup>라고 하였다. 당시 함께했던 문인들

25) 『餘窩集』 권2, 「採芹錄」(한국문집총간본), 〈結社: 其二〉.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五十而無聞, 捫腹徒空洞. 六藝何有我, 諸君汎愛衆. 巾履以過從, 翰墨乃玩弄. 意至無疎  
 數, 禮簡無迎送. 忘形復亡年, 墮地如伯仲. 睠言車笠場, 離合一幻夢. 中年有存沒, 半途  
 或睽閑. 拊躬實自戒, 回首所潛慚. 歲寒與爲期, 矢言以相諷.” 번역은 이세림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세림, 앞의 논문, 88쪽.

26) 『餘窩集』 권3, 「採芹錄」(장서각본), 〈夏日新雨集于阿西林下 其二〉. 시의 전문은 다음  
 과 같다. “漏日深逾淨, 啼鶯晚更慵. 佳辰不虛負, 良友數爲逢. 欄急傍多石, 巖尊上有松.  
 吾衰猶脚力, 身已最高峰.” 번역은 이세림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위의 논문, 68쪽.

이 대부분 목만중의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젊음과 비교하자면 자신의 노년이 더욱 비교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쓸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역사록」에서 자신의 '늙고 쓸모없는 처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서 목만중에게 늙음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늙음 자체로도 존재로서의 의미를 얻게 된다.<sup>28)</sup> 현재 할 일 없이 있는 늙은이지만 현재를 즐기고, 유연하게 현실을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역사록」에 수록된 시에는 다양한 시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다수 삶에 대한 여유가 존재하는데, 점희당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함께 한적(閑寂)이란 시적 정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시에서 드러나는 여유는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지닐 수 있는 경지로, 「역사록」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비록 쓸모없이 나이만 먹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인생에 대한 관조와 여유가 깃들어 있다. 이러한 여유가 생긴 삶의 변화는 그의 작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 Ⅲ. 노년기 시의 특징

「역사록」에 수록된 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시체를 활용하여 창작하였다는 점이다. 목만중이 어릴 적에 지은 시부터 70대 중반까지 지은 시에는 오언·칠언 율시와 장편 고시가 가장 많다. 목만중은 장편 고시 중에서도 가행체를 창작하였는데, 이는 수창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남인 문단의 영향과 관계가 깊다.<sup>29)</sup> 이와 같은 악부체나 고시를 제외하면 목만중이 주요 시체에서 벗어난 작품을 창작한 경우가 드물다.

그에 비해 「역사록」에 수록된 시집에는 잡체시를 연달아 창작하여

27) 餘窩集』 권8, 「從心錄」(한국문집총간본), 〈東社中諸君約會虎丘〉.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春來幽事在林泉, 不必瑤臺駕紫烟. 芳草正堪紉作佩, 明沙無謝錦爲筵. 家貧佐酒饒蔬果, 樹密啼禽勝管絃. 笑殺樓臺園裏叟, 強將華髮抗尊前.”

28) 신체적 늙음을 직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는 태도는 정약용에게서도 발견된다. 박혜숙(2009)은 이를 “다산의 노(老)에 대한 실존적 진실”이라고 하였는데, 목만중의 노년에 대한 인식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박혜숙, 앞의 논문(2009), 250쪽.

29) 목만중의 장편 고시 창작에 대해서는 박희인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른 시적 흥취를 느끼게 하였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희작(戲作)’이 붙은 시제(詩題)가 많은 점도 「역사록」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또한 노년의 삶을 목만중만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연작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물론 「역사록」에서 보이는 특정 시들이 「역사록」을 대표할 만큼 작품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역사록」에는 다양한 주제와 정서를 보이고 있기에 이를 모두 포괄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역사록」 내에 수록된 모든 작품이 이전에 창작된 작품들과 시상이 대조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년에도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증시와 송별시를 남겼으며, 근교를 유람하며 자연 속에서 얻는 한가로운 정을 읊기도 하였다. 또한 분매를 가꾸는 취미로 인해 매화시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역사록」과 이전 시기에 창작된 작품과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목만중의 변화된 작시 태도와 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특히 「역사록」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작시방법의 시도는 관인문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였던 이전과는 달리 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력을 보이거나 작시 자체를 즐기게 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1. 시 형식의 변화: 잡체의 다양한 시도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록」에 수록된 시와 이전 시 작품 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잡체시 창작이다. 팔음체(八音體), 십이진체(十二辰體) 등 다양한 잡체시가 창작되었는데, 목만중의 문집 『여와집』에 수록된 잡체시의 창작 시기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노년기에 잡체시를 많이 창작하였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역사록」에는 잡명시 계열의 시가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와집』에 수록된 절구시·율시·장편고시를 제외한 기타 시체(詩體)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잡체시 창작 양상을 정리해보면 목만중은 주로 40대 이후부터 잡체시를 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와집』에 수록된 시들은 대다수 그가 40대 이후에 창작한 시이다. 그렇기에 잡체시 창작이 중년 이후에 창작된 사실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중 연구시 창작이 목만중이 40-50대에 이루어진 것은 당시 그의 시사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연구시는 각각 목만중의 친척이자 시우(詩友)였던 목조수와 함께 지었거나, 시사

표1-『여와집』 소재 잡체시 현황

권명	시체	제목	시기	
採芹錄	聯句詩	〈瓦爐聯句〉	1773년	
白社錄	聯句詩	〈晚遊南營水閣, 口號聯句〉	1778년	
	雜言詩	〈慧明軒朝起, 六言四首〉	1779년	
從心錄	演雅詩	〈戲次演雅賦梅韻〉	1802년	
櫟社錄	雜名詩	〈五行體〉	1808년	
		〈五聲體〉		
		八音體		〈八音體〉
		十二辰體		〈十二辰體〉
		二十八宿體		〈二十八宿體〉
				〈更賦二十八宿〉
	八音體	〈放言, 用八音體〉	1810년	
回文詩	〈淡令在季氏巴陵縣齋, 戲用迴文體贈之〉	1805년		
	〈淡令用韻迴文見技, 疊韻〉			

일원이었던 정범조와 수창한 작품이다. 연구시는 주로 2인 이상의 인물이 수창하는 과정에서 지어지는 시체이기에 이 시기 목만중의 연구시 창작이 시회나 문인들과의 교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외에 특별한 창작 배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70대 이후에 다양한 잡체시 창작을 시도한 것은 이전의 작시 경향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시체명변(詩體明辯)』에 근거하면, 「역사록」에 수록된 시들 중에 〈팔음체(八音體)〉와 〈십이진체(十二辰體)〉는 잡수시에, 〈이십팔숙체(二十八宿體)〉는 잡명시에 해당된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모두 잡명시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잡명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술어 및 술어 구성요소를 가지고 시구에 배열하면서 짓는 잡체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이십팔숙체의 경우에는 별자리 28개에 해당하는 글자가 한 구에 한 자씩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잡명시를 창작하려면 시어에 대한 높은 조예가 필요하다. 또한 1805년에 창작한 회문시 두 수는 바로 읽든 거꾸로 읽든 의미가 통해야 하는 까다로운 형식 중 하나이다.<sup>31)</sup> 노년에 와서 까다로운 형식을 요구하는 잡체시를 지었다는 점은 작시 경향이 변화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30) 이미진, 『조선 중기 잡체시 창작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b), 192쪽.

31) 정민, 「잡체시, 그 실험적 언어양식」, 『문화예술』 통권 122호(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89).

작시 경향의 변화 원인을 유추하려면 우선 잡명시의 문집 수록 순서가 연달아 이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목만중의 문집 구성이 시간적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잡체시 창작은 여러 차례 걸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서 한 번에 이어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관하여는 1808년에 잡명시를 연달아 짓기 전의 작품을 눈여겨볼 만하다. 목만중은 젊은 시절 재미삼아 연적 시를 차운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잊고 있다가 이서우도 같은 시로 차운한 것을 보고 다시 교정하여 지었다.<sup>32)</sup> 이는 노년에도 시재(詩才)를 끊임없이 다듬으며 시에 대해 진지하게 일관했던 목만중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잡체시의 창작도 이와 유사한 태도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잡체시는 시구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시(學詩)의 방법으로도 사용되며, 유희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역사록」에 수록된 잡명시나 회문시는 언어적 기교나 시어 배치 능력이 중요하다. 잡명시의 경우 특정 어휘가 시구에 삽입되어야 하고 고시의 형식을 유지해야 하므로 언어적 기교가 매우 중요하며, 회문시 역시 한자어의 중의성을 파악하고 평측과 압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어 배치 능력이 중시된다.<sup>33)</sup> 이처럼 잡체시 창작은 작가의 언어표현 역량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므로 시에 대한 조예가 높아야 가능하다.

이 밖에 잡체시 창작 현상은 흔히 복고주의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잡체시는 언어 표현 역량에 초점을 두었기에 당풍이 추구한 다양성 추구나 언어실험정신과 관련이 깊으며 고시의 자유로운 격식과도 관련이 깊다.<sup>34)</sup> 복고주의나 당풍 지향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근기 남인 문단의 특성으로 지목되어<sup>35)</sup> 왔기에 목만중의 잡체시 창작도 남인 문단의 특징과

32) 『餘窩集』 권10,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少日客有誦東人硯滴強韻詩曰, 河濱遺法歷周秦, 吞吐清波兩穴因, 形似玉山心貯水, 孰如其智孰如仁. 余愛其巧於用強, 遂步成云云, 或曰筆名有棗心而以心爲仁, 恐涉如何. 余以游戲之作, 終非詩家正果, 且恐或近稚語, 不爲收錄, 而尙未能忘情, 有時暗誦. 今見松翁所次二篇, 其一曰人文天與兆西秦, 汲引聲名四友因. 報主涓涓源派在, 兒孫千萬認歸仁. 其二曰完璧初疑免碎秦, 陶成道是火功因. 心肝瀝盡資靈巧, 四友咸歸一友仁. 此老巧於詠物, 尤善用險韻, 爲文苑所推伏. 余自喜少時謾詠, 能與巨匠暗合, 遂追寄錄之. 而下句少加鑷括, 韻則仍用棗仁云〉.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和璧當年不碎秦, 陶家留托後生因. 相隨石友兼三益, 墨濕濤賤筆棗仁.”

33) 이미진, 앞의 논문(2013b), 166쪽.

34) 위의 논문, 50-57쪽.

35) 부유섭, 『17-18세기 중반 근기남인 문단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윤재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문예원, 2012).

연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문단 내에서 잡체시를 창작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유경중이 회문시와 이합시(離合詩), 잡언시를 비롯한 다양한 잡체시를 창작한 사실<sup>36)</sup> 외에는 이하진이 잡명시를 몇 수 창작하였으며, 채유후나 이헌경에게서 연구시가 조금 확인될 뿐이다. 근기 남인 문인의 복고주의나 상고주의 문학 경향은 주로 장편 고시를 통해 실현되었을 뿐, 잡체시 창작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만중의 복고주의 지향이 장편 고시의 다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노년기에 등장하는 잡체시까지 근기 남인 문단의 시맥 경향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목만중은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의 시적 역량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잡체시를 활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노익장을 과시하듯 만년에 이르러서야 잡체라는 복잡한 형식으로도 자신의 감회를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 창작에도 중장년에는 관직 진출이라는 자신의 목표에 얽매일 수밖에 없던 상황과는 달리 만년에는 그러한 문제에 자유로워져 희필(戲筆)이 가능해졌으며 좀 더 실험적인 작시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잡체시가 지닌 유희성을 전제로 한다면 목만중에게도 잡체시 창작이 어느 정도 오락적인 기능을 담당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시의 창작 형식은 과감해졌지만 내면에 담긴 시적 의미는 목만중의 노년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깃들여 있다. 목만중이 지은 잡체시 중 대표적으로 팔음체에 해당하는 다음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만중은 팔음체를 두 수 지었는데 다음에 제시한 시는 1810년에 지은 시이다. 팔음체는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을 시어로 활용하여 창작하는 시체이다.

〈즉흥적으로 읊다(팔음체로 씀)〉

금단의 묘한 방법을 숨겨둔다 한들	金丹闕眞訣
흐르는 시내처럼 물결 멈출 수 없다네.	逝川無停波
부싷돌 찾아드는 불꽃 번쩍임에도	石火閃餘焰
부상(扶桑)은 돌연 가지 말라버리네.	扶桑倏枯柯
거울에 비친 백발 한 올 한 올	絲絲鏡中髮
찬 규방에 있는 노파 한 사람.	寒閨老一婆
서책에 천추의 업 담았다지만	竹帛千秋業

36) 김동준, 『海巖 柳慶種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78-109쪽.



내 뜻은 끝내 어긋나버렸네.

술통과 금술잔에

손을 대자 밧그레 취하네.

토지 비옥하고 곡식은 익으니

어찌 옥산의 벼 부러우랴.

혁신과 인습은 때에 따라 뒤바뀌고

화복(禍福)의 변화 끝내 같은 결과라네.

나무에도 쓸모없는 것 있으니

훌륭한 목수라도 너를 어찌하리오?

此意遂蹉跎

匏樽與金罍

到手適微醺

土肥秔稻熟

肯羨玉山禾

革因迭隨時

倚伏竟同科

木有樗櫟者

良匠奈汝何<sup>37)</sup>

시의 구성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1구에서 8구는 세월의 흐름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후반부 9구에서 16구까지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불로장생을 바라고 있으며, 세월의 흐름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신선들의 불로장생약이라는 금단(金丹)의 비법을 안다고 해도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다. 노년의 쓸쓸함을 흰 머리칼을 거울에 비치며 단정히 정리하는 노파의 모습으로 설정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노파가 앉아 있는 공간을 '찬 규방(寒閨)'이라는 시어로 설정하면서 한층 더 노년의 쓸쓸함을 부각시켰다. 1구에서 6구까지의 시적 전개가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반적인 상황 및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7, 8구에서는 목만중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문인이었던 목만중은 개인적으로 포부가 많았으나 모두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시련은 자신이 지녔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기에 큰 어려움이 되었으며, 이런 것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된 처지를 두 구에 담았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만족스럽게 취할 만한 술과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곡식들을 내세우며 세월의 흐름에 대한 한탄스러움과는 관계없이 세상은 무탈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묘사된 장면들은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어, 부러울 것이 없는 인간사에 대해 논하고 싶은 뜻을 내비쳤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을 뒤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거나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37) 『餘窩集』 권10, 「樗社錄」(한국문집총간본), 〈放言, 用八音體〉.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도 시운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고, 운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여도 결국 결론은 같아진다. 누군가가 뭐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삶을 즐기겠다는 자세이며, 현재 처지에 만족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다소 인생에 달관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장자』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이 고사는 「역사록」의 명칭을 가져온 고사이기도 하다. 재목으로 타고나지 못했지만 나무가 가질 수 있는 나무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역사록」의 서문에서 목만중이 생각한 노년에 대한 시각과 일치한다. 특히 이 시가 창작된 1810년은 목만중이 임종한 해로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복잡한 세상사에 유연해질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기에 아무도 그에게 이익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를 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오히려 남들보다 길었던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 여기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태도이다.

다만 특정 시어가 일정한 자리에 삽입되어야 하는 잡체시의 법칙 때문인지 시상의 흐름이 유연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각 연마다 시상이 독립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 연과 연 사이의 인과성은 미약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시의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였을 때, 전반부의 7, 8구와 후반부의 15, 16구에 각기 개인 상황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구성을 치밀하게 하여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오성(五聲)을 활용한 시이다. 다섯 가지 소리란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를 말한다. 목만중은 각 다섯 글자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글자의 획 안에 포함시켜 시를 창작하였다. 각 시어 ‘영(營)·적(謫)·해(解)·징(懲)·상(翔)’ 자가 오성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오성체로 씀(운산에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며)〉

당혹스러움에 급히 떠나왔으니	屏營復徧側
고향 땅은 운산 너머 멀리 있구나.	故國雲山外
한번 쫓겨 온 지 벌써 삼 년째	一謫已三載
벌이 무거우니 죄가 큼을 알겠네.	罰重知罪大
우레와 비 흩어지나 살펴보며	尙稽雷雨解
바람과 구름 안 나기를 감히 바라노라.	敢冀風雲會
거꾸러지고 자빠지매 스스로 나무라지 않겠는가	顛躓不自懲
어리석고 망령됨에 해가 없을 수 있겠는가.	愚妄能無害

원컨대 기러기 따라 날아가  
편안하게 남쪽으로 패수를 건너고파.

願逐賓鴻翔  
平安南渡淇<sup>38)</sup>

시제에 주를 달아 ‘운산에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며(懷雲山)’라고 하였는데, 흔히 ‘운산(雲山)’은 구름 낀 산이나 속세를 벗어난 산수 좋은 곳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운산은 지명의 하나로 태천에서 가까운 곳이다. 목만중이 1788년 묘향산을 유람하며 지은 시에서도 지명으로서의 운산이 등장한다.<sup>39)</sup> 목만중의 생애에서 운산과 가까웠던 시절은 그가 1787년에 태천 현감을 지내며 태천 부근 및 묘향산 주변을 유람했던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목만중이 그 시절을 회상하며 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추억을 회상하는 일반적인 시의 전개와는 다르게 과거의 시점(時點)에서 상황을 묘사하고, 시적 정서를 끌어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의 ‘편안하게 남쪽으로 패수를 건너고파(平安南渡淇)’는 시의 화자가 있는 곳이 운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자의 시점이 현재가 아닌 과거의 태천에 관리로 있었을 때임을 추측할 수 있다. 목만중이 태천 현감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목만중은 오랜 시간 관직에 나아갔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파직되기를 여러 차례 겪었다. 태천 현감으로 보낸 3년의 시간이 목만중이 처음으로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때이다. 그러나 곧바로 태천에서의 일로 유배를 당하기도 하며, 이후 정치적으로 복잡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시기는 목만중에게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바라기도 한다. 그 기대심리를 5, 6구에서 드러내었다.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을 ‘우레와 비(雷雨)’로, 좋은 기회를 ‘구름과 바람(風雲)’이란 시어에 각기 함축시켰다.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한 모습이다. 동시에 7, 8구에서는 현실에 대해 자신을 탓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책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38) 『餘窩集』 권10,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五聲體(懷雲山)〉.

39) 〈將向妙香山 途中記興〉의 두 번째 수. 해당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牛蹄嶺入馬蹄間, 石棧盤盤往復還. 東岫長天三十里, 白雲生處是雲山.” 또한 雲山에 대해 주를 “嶺是泰川雲山之境. 從者登嶺東指曰, 白雲多處是雲山”이라고 달았다(『餘窩集』 권6, 「寧朔編」(한국문집총간본) 참조).

것으로, 화자의 시점은 운산에서 지낸 시절이지만 내재되어 있는 정서는 모든 일이 지난 뒤에 가능한 것이다.

이 시는 작품의 시점을 현재가 아닌 과거에 두어 창작한 점이 특징이지만, 오성체로 지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래 오성체는 따로 존재하는 시체는 아니다. 『시체명변』에도 소개되지 않았으며, 여타 문인에게서도 오성을 활용하여 시를 지은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 목만중이 잠명시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체를 시도한 것인데, 이는 <오성체> 외에 <오행체(五行體)>도 마찬가지로 있다. 오행체 역시 시체로서 『시체명변』에서 소개된 문체가 아니다. 다만 조위한의 문집 『현곡집(玄谷集)』에 ‘오행(五行)’을 활용하여 지은 <오행체>라는 작품이 있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체에 “옛날에 이 시체를 지은 자가 없으니, 내가 처음으로 지은 것이다(古無作此詩者, 余始創之)”라고 주를 달았는데, 두 작품 간의 영향관계는 파악되지 않지만 이 주석을 통해 오행체가 자주 활용되던 시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목만중의 <오행체>가 조위한의 <오행체>와 비교되는 점은 ‘오행’의 글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부수자와 상징성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목만중이 지은 다른 잠명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어가 시의 구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오성체>와 <오행체>는 한자어의 부수나 상징성을 활용하여 지었다. 잠명시처럼 특정 시어를 시구에 넣는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였지만 파자놀이를 결합하여 일반적인 잠명시 보다는 복잡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기묘한 형태의 잠명시를 창작하였다는 사실은 목만중의 실험적이면서 유희적인 작시 경향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오행체로 짓다>

푸른 바다나 뿔밭도 모두 한때의 일이지만  
 향초와 악초는 끝내 절로 구별되리.  
 제아무리 강한 불길도 녹일 수 없는 것은  
 군자가 잡고 있는 굳은 절개라네.  
 아비와 스승 높이는 동방의 나라에서  
 몇몇한 윤리가 어찌 무너지리오?  
 부월을 들고서 어찌 위엄 없으리오,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들고 나가리라.  
 묘당의 모신 현인에게 사례의 글 올리니

滄桑各一時  
 薰蕕終自別  
 劫火銷不得  
 君子秉苦節  
 東方父師國  
 彝倫寧數絕  
 斧鉞豈不威  
 干戈期共挈  
 寄謝廟堂賢

3번째 구의 ‘화(火)’를 제외하면 나머지 오행의 ‘수(水)·목(木)·금(金)·토(土)’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첫 구의 ‘창(滄)’의 부수는 ‘수(水)’이며, 5번째 구의 ‘동방(東方)’은 동쪽을 상징하는 ‘목(木)’을 떠올리게 한다. 7번째 구의 ‘월(鉞)’의 부수는 ‘금(金)’이며, 9번째 구의 ‘묘당(廟堂)’은 일반적으로 중심을 상징하기에 ‘토(土)’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자의 부수나 상징성을 제시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작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목만중의 언어적 기교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는 시어의 유희성에만 주목한 까닭인지 시상의 흐름은 유연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목만중은 어릴 적부터 분매를 가꾸었으며, 중년에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 매화를 감상하며 작품을 남길 정도로 매화를 애호하였다.<sup>41)</sup> 매화에 대한 애정은 만년까지 이어져 매화를 대상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으며<sup>42)</sup> 그중에 매화에 대해 오체(吳體)<sup>43)</sup>를 활용하여 지은 시도 있다. 오체는 세련된 비유보다는 통속적인 언어와 비유를 사용하는 시체 중의 하나이다.

〈매화 감상(오체로 씀)〉

점희당 안에서 결사를 맺어	漸喜堂中曾結盟
동지 뒤 납일 전에 언제나 만난다네.	臘前至後每逢迎
얼굴은 세월 따라 늙음을 재촉하고	容顏冉冉催遲暮
격조는 해마다 더욱 노숙해지네.	標格年年添老成
몇 가지 매화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피었으니	數花不早亦不晚
양(陽)이 막 사라졌다 다시 살아날 때라네.	一陽方死還方生
내 나이 이제 여든셋인데	餘翁八十更三歲

40) 『餘窩集』 권10,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五行體〉.

41) 매화 시사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梅花歌(寄士述)〉, 〈赴景三梅花會〉, 〈夜到隣家賞梅〉, 〈聞今日諸君作梅花會〉 등이 있다. 해당 작품들은 『餘窩集』 권5, 「白社錄」 3(장서각본)을 참조했다.

42) 예컨대 목만중이 매화를 소재로 하여 만년에 지은 시로는 〈賦梅龕中冬青諸樹〉, 〈鄰梅俱向凋家梅數蕊始綻短律題龕〉, 〈梅發不廢故事短律題龕且索答〉, 〈代梅答以長句〉가 있다. 『餘窩集』 권9-10,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참조.

43) 吳體는 엄밀히 구분하면 잡체보다는 변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체도 「樸社錄」에서만 보이는 유형인데, 목만중이 주요 시체 외에도 다양한 시체를 시도하여 시를 창작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에서 다루었다.

오체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주로 전고를 끌어와 창작했던 목만중의 다른 시와는 달리 〈매화 감상〉은 고사를 활용하지 않고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여 창작하였다. 3번째 구의 ‘염염(萋萋)’이나 4번째 구의 ‘연년(年年)’처럼 동어가 반복되는 의태어를 활용하였으며, 5번째 구에서는 ‘不’자가 한 구에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번째 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칭하는 ‘여옹(餘翁)’과 자신의 나이로 한 구를 채우고 있어 시어의 짜임이 세련미가 없다.

노년에 매감까지 두었던 목만중은 이 시에서 매화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시의 초반에는 노년에 지인들과 매화 구경하기를 즐겼던 목만중이 추위가 사그라지지 않은 시기에도 매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매화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다. 매화는 오래될수록 격조가 노숙해져 비록 풋풋함은 부족할지라도 완성도 높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매화의 자태는 목만중 자신의 처지에도 닮아 있어 노숙함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나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매화의 완성미는 피어난 시기마저 완벽한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음이 극에 이른 뒤에 ‘양(陽)’이 하나 생기는 절기인 동지에 꽃이 피어 봄이 왔음을 예견하기도 한다. 여기서 ‘양’은 동시에 맞춰 피는 매화를 뜻한다. 봄이 도래함에 대한 기대와 매화를 감상하는 취미로 인해 목만중은 자신의 노년을 잊고 삶을 즐기게 된다. 동시에 시에서는 매화를 통해 봄이 돌아왔음을 인지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드러내고 있다.

목만중은 노년에 다양한 시체를 활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작 정신이 높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는 목만중의 시적 재능이 높은 경지에 도달하여 가능해진 과감성이며, 노년에도 끊임없이 시를 가다듬으며 노력했던 탐구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작시 경향은 노년에 와서 가능해진 여유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목만중만의 개성이 담긴 시적 미감을 자아낸다.

44) 『餘窩集』 권10,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題梅翁用吳體〉.

## 2. 연작시를 통한 ‘무용지용(無用之用)’ 의식의 심화

목만중은 ‘노(老)’를 주제로 14편의 연작시를 희작(戲作)하기도 하였다. 시 〈늙음에 대해 읊은 14편은 여러 사람과 한가롭게 지내던 날 장난삼아 재미로 지은 것이다. 천수를 누리며 무탈하게 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래야만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망하면서 슬픔에 사무쳐 괴로워하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지낼 수 없으니 이는 비천한 자나 아녀자들이나 하는 일이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말과 소 두 짐승을 아래에 두었으니 또한 동물들 가운데 가장 인간사와 관계가 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목에 따라 지었을 뿐 그 시운은 고려하지 않았다〉<sup>45)</sup>에는 천수를 누리는 일과 인생을 즐기는 일에 대한 목만중 개인의 관조가 내포되어 있다. 이 시는 선비·장수·농부·의원·첩·노복·관리·병사·무당·점쟁이·승려·기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과 소와 말을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노년을 주제로 한 연작시는 목만중 외에 다른 문인에게서도 발견된다. 송대(宋代)의 유극장은 〈십로시(十老詩)〉라고 일컬어지는 연작시 10수를 남겼으며<sup>46)</sup>, 청대(清代)의 많은 문인이 노년을 주제로 한 연작시를 지었다.<sup>47)</sup> 국내 문인들도 노년을 주제로 한 연작시를 많이 남겼다. 대표적으로 소세양이 6편<sup>48)</sup>, 이현석은 5편<sup>49)</sup>, 김구가 5편<sup>50)</sup>의 연작시를 지었다. 성현은 〈육로사(六老辭)〉라 하여 6수의 고시를 남겼다.<sup>51)</sup> 목만중보다 후대 문인 중에서는 오상적이 8편의 연작시를 남겼다.<sup>52)</sup> 남인 문인 중에는 오상림이 6편의 연작시를 지었으며<sup>53)</sup>, 이현경

45) 『餘窩集』 권10, 「襟社錄」(한국문집총간본), 〈咏老十四篇, 諸君蓋於暇日游戲自娛之作也. 所貴乎壽考無恙者, 以其能優閒佚樂也. 若嗟怨悲苦, 不能以理自遣, 則即卑賤兒女事耳, 何足道哉. 馬牛二獸列之下方者, 亦以物類之最關人事也. 依其題而不依其韻云〉

46) 方回 選評, 『瀛奎律髓彙評』中(上海古籍出版社, 2005), 1211-1216쪽.

47) 예컨대, 方濬頤의 『二知軒詩鈔』, 董元度的 『舊雨草堂詩』, 樊增祥의 『樊山續集』, 方濬頤의 『矩庵詩質』, 喬于洞의 『思居堂集』 등에서 노년을 주제로 한 연작시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중국기본고적고 DB 참조).

48) 『陽谷集』 권5(한국문집총간본), 〈老將〉·〈老儒〉·〈老妓〉·〈老僧〉·〈老奴〉·〈老馬〉.

49) 『游齋集』 권3(한국문집총간본), 〈老儒〉·〈老將〉·〈老仙〉·〈老農〉·〈老僧〉.

50) 『觀復齋遺稿』 권1(한국문집총간본), 〈老將〉·〈老兵〉·〈老仙〉·〈老農〉·〈老僧〉.

51) 『虛白堂集』 권2(한국문집총간본). 老將, 老宦, 老商, 老妓, 老馬에 대해 지었다.

52) 『恩誦堂集續集』 권9(한국문집총간본), 〈老醫〉·〈老僧〉·〈老婢〉·〈老妓〉·〈老驢〉·〈老鼠〉·〈老狗〉·〈老豬〉. 일반적으로 노년을 주제로 한 연작시에서 소와 말 외에 다른 동물들은 시적 대상으로 잘 삼지 않은 데 비해, 이상적의 경우 쥐, 나귀, 개,

은 4편을 창작하였다.<sup>54)</sup> 또한 윤기가 14편의 연작시를 남겼다.<sup>55)</sup> 목만중의 ‘노(老) 14편’의 창작도 이러한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목만중은 제목을 통해 노년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드러내었기에 목만중의 ‘노(老) 14편’만이 지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목에서 목만중은 천수를 누리려는 일이 여유와 편안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며,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난삼아 재미로 지은 것이다(游戲自娛之作)’라고 하였는데, 노년을 소재로 하면서 즐기기 위함이며, 회작하였다는 점은 그가 노년의 삶을 슬픔이나 탄식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와집』에서는 목만중의 회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편인데, 회작에 해당하는 ‘희(戲)-’ 계열의 시제나 ‘방언(放言)’이 붙은 시제는 그가 노년에 지은 작품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sup>56)</sup> 이 또한 목만중의 창작 태도가 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이전까지는 시를 지을 때 선비나 관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했다면 노년에는 대부분 유희 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적 능력이 높아지고, 노년이 되자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전보다는 자유롭게 시를 짓게 된 것이다.<sup>57)</sup> 즐기기 위해 지었다고는 하지만 각 계층의 삶에 대한 목만중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돋보인다.

돼지 등 다양한 동물을 소재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53) 『燕超齋遺稿』의 이본마다 수록된 연작시의 편수가 다르다. 시집만 남아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에는 총 6편의 연작시가 수록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 활자본인 『燕超齋遺稿』 권3에는 2편의 연작시만 수록되어 있다.

54) 『良翁集』 권6(한국문집총간본), 〈老將軍〉·〈老措大〉·〈老僧〉·〈老妓〉.

55) 『無名子集』 권6(한국문집총간본), 〈人有以老字賦十二首者, 蓋推歎老之意也. 余以爲猶有所未盡收者, 農與卒是也, 遂添之爲十四首, 覽之者尙不以爲蛇足也歟〉.

56) 戲作 계열의 시는 소개된 시 외에 『櫟社錄』에서만 〈淡令在季氏巴陵縣齋, 戲用迴文體贈之〉, 〈東鄰夜失榴盆竊笠. 戲以一律見示, 和成兩篇〉, 〈陸律曰 美酒過於求趙璧, 異書渾似借荊州. 余於書無所不愛, 自謂癖不減古人. 顧力未能致之耳. 獨於酒德甚薄, 小飲輒醉, 不飲不戀, 古今人不相及如此, 步韻戲賦〉, 〈戲題手中扇面〉 등이 있다.

57) 이처럼 만년에 회작이나 연작시를 창작하는 경우를 유경종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동준(2005)은 유경종이 시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파격적인 작시 경향을 보인다고 논하였다. 목만중의 회작이나 연작시를 파격적인 작시 경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는 유경종의 창작 경향과 유사하다고 본다. 김동준, 『해암 류경종의 시문학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5권, 한국한문학회(2005), 418-420쪽.



〈늙은 선비〉

두 눈동자 감겨오며 앉은 채로 기우뚱	雙瞳欲閉坐如傾
창가에 석양빛 드니 의외로 밝아지네.	返照當窗分外明
경전 가르치길 좋아할 뿐 그 대가 사양하고	愛教一經金讓價
삼월의 처지 되기 싫어 옥 같은 명성 묻어두네.	耻遭三削玉埋名
그래도 운수 묻고 싶을 땐 당거를 따르고	猶思問壽從唐舉
애써 학문 말하고자 하면서 복생을 사모하네.	強說專門慕伏生
책상 위 책 가져다 이따금 펼쳐보매	拈取案書時閱過
오랜 의혹 풀리니 기쁘고도 놀랍구나.	舊疑勘破喜還驚 <sup>58)</sup>

연작시의 첫 수인 늙은 선비에 대한 작품이다. 노인이 되어버린 선비는 책을 읽다가 잠이 많아져 졸음을 견디지 못해 꾸벅꾸벅 고개를 기울이며 졸고 있다. 아직 초저녁이라 이제 막 석양빛이 물들고 있는데도 잠이 쏟아져 이길 수가 없다. 선비가 졸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석양빛 때문에 방은 아직 빛이 남아 있다. 이 선비는 오랜 시간 축적한 학문적 역량을 그에게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다. 선비답게 물질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지 자신의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즐길 뿐이다. 그런 선비는 자신이 지닌 자질이나 품성과는 달리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다만 초야에 묻혀 공부를 할 뿐이다. 4번째 구의 삼월(三削)은 재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를 뜻한다. 초나라 사람이 옥을 얻어 바쳤지만 거짓이라고 하여 다리가 잘렸다. 이후에야 그 옥을 자르니 아름다운 옥이 나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숨은 옥처럼 뛰어난 재주는 묻어두고 드러내면 도리어 화를 당할까 봐 욕심 없이 살고 있는 학자의 모습을 삼월 고사를 활용하였다.

함련에는 각기 관상학과 유학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끌어왔다. 5번째 구의 ‘당거(唐舉)’는 관상학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6번째 구에 나온 ‘복생(伏生)’은 『사기』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진시황이 분석할 때 홀로 『상서』를 감추었다가 한나라가 흥기한 뒤에 학자들에게 가르쳐 후세에도 전하도록 한 인물이다. 각 분야에 뛰어난 두 인물을 설정하여 선비가 지향했던 인물상을 그려내었다. 결국 선비가 평생토록 깨닫고자 했던 이치나 고뇌를 해결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묘사된 선비는 욕심 없고 항상 학문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58) 『餘窩集』 권10,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老儒〉.

다. 노년의 선비로 설정되었지만 노년의 모습보다는 선비의 삶 자체에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에 오랫동안 쌓아둔 의혹을 해결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축적해둔 학문의 깊이가 필요한 것으로 노년의 선비만 이를 수 있는 경지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목만중의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늙은 농부〉

헐렁한 옷 떨어진 신 예전 모양 그대로요	寬褐羸鞋有古風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그저 노인이라 한다네.	罕稱名姓但稱翁
밭이랑 따라가며 기름진 땅 척박한 땅 나누어	連畦地力分腴瘠
해 따라 농토에 풍년 들지 흉년 들지 정하네.	逐歲田功訂歉豐
절기 따르니 새로운 달력으로 따져볼 일 없고	節序不煩新曆測
비가 올지 갠지는 오랜 병 통해 가만히 살펴보네.	雨晴潛候宿痾通
가을 오면 모임에서 어른으로 추대하여	秋來社會推爲長
농사일 정성 드리라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네.	眷眷桑麻話里童 <sup>59)</sup>

헐렁한 옷에 다 닳아가는 신을 신은 농부의 차림새를 묘사하여 시적 대상을 초라하고 가난한 농사꾼으로 설정하였다. 동네의 그저 보잘것없고 흔한 농사꾼이기에 이름도 없이 노인으로 불린다. 그는 농부로서의 삶이 길었던 만큼 농사일에는 전문가이다. 밭이랑을 따라 걸으며 각 밭마다 농작물이 잘 자랄 만한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척박한 땅을 가늠하며, 미리부터 다음 해의 농사를 점쳐본다. 어느 땅에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을지, 척박한 땅에 얼마나 거름을 주어야 내후년이라도 옥토로 거듭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사일이라면 흰한 인물이다. 농사를 처음 짓는 이라면 알기 어려운 일종의 노하우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다. 달력을 따로 볼 필요 없이 절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농사일이기에 오늘이 며칠쯤인지 가늠할 수 있으며, 고단한 농사일에 빠근한 몸과 통증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미리 알게 해준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랜 시간 농사일에 종사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마을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잔치를 벌인다. 마을에서 그저 노인으로 불릴 만큼 연장자인 농부는 마을 사람들

59) 『餘窩集』 권10,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老農〉.

이 모인 자리에서 어른으로 대접받는다. 어른으로서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할 때 거창한 말을 할 법도 한데, 농사일밖에 알 도리가 없는 그는 그저 ‘곡식들을 잘 돌보라’는 지극히 농부다운 말만 할 뿐이다. 여기서 시적 대상인 늙은 농부가 농사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이나 마을에서 어른으로 대접받는 모습은 모두 노년의 나이가 되었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이 또한 앞의 〈늙은 선비〉와 마찬가지로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목만중의 생각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늙은 첩〉

일찍이 길일 정해 가문에 들어왔거늘	會隨吉卜入門來
함께 우환 겪은 지 몇 해나 지났다.	共閱憂患歲幾廻
갖은 술과 반찬 차리며 식성도 알고	五味杯枰諳食性
사시사철 옷 지으며 몸치수도 안다네.	四時衣服稱身材
아들손자 길러주며 그 사랑에 크게 의지하고	養成深托兒孫愛
힘써 일하다 보니 본부인 투기도 말끔히 잇는다네.	伏事全消主母猜
무덤 쪽 바라보며 묻힐 곳 달라 하니	願向墳前乞葬地
저승 가도 밤낮으로 영원히 따르고자 함이라.	泉臺日夕永相陪 <sup>60)</sup>

첩으로서 한 사람을 보필해온 여자의 삶을 그려내었다. 여자는 본부인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가족의 일원으로 동고동락을 하였다. 가족을 위해 갖은 술상을 보고 식사를 꾸려왔기에 식구들의 식성을 훤히 꿰뚫고 있으며, 옷을 짓는 일에도 열심히 하여 몸치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집안의 아이들을 맡아 기르며 아이들의 사랑으로 첩으로서 겪는 설움이나 적적함을 위로받기도 한다. 본부인의 어쩔 수 없는 투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지만 외려 일에 몰두하여 마음의 고단함을 몸의 고단함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한평생을 집안일을 위해 힘쓰는 모습은 첩이 지나온 일생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힘들게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해온 첩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죽어 돌아갈 곳이다. 첩이라 쉽게 선산에 묻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만 자신이 죽은 뒤에 묻힐 곳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죽어서도 자신이 따르던 이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다.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젊고 늙음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60) 『餘窩集』 권10, 「樸社錄」(한국문집총간본), 〈老妾〉.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다.

〈늙은 종〉

집 안에서 늘 하는 것은 옷 짓고 밥 짓는 일	衣衣食食是家常
남은 생애 노력해도 묵은 빚 다 못 갚지.	宿債殘年不盡償
보리 말릴 땐 언제나 새 쫓느라 성가시고	曬麥每煩驅鳥雀
꿀 먹일 땐 오직 소와 양 잘 자라라 조심하였네.	飼蕪惟謹護牛羊
주인과 종 함께 늙고 병들매 안타까워하고	相憐主僕同衰疾
도련님 일찍 출세하기만을 바랐을 뿐.	祇願郎君早立揚
평생토록 소영사를 너무 좋아해	苦愛生平蕭穎士
대번에 고향 가겠단 말 하지도 않았네.	將身未遽乞還鄉 <sup>61)</sup>

사람은 항상 옷을 입고 밥을 먹기에 집에서 옷 짓고 밥을 짓는 일은 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탓에 이력이 날 만도 해서 얼마나 일을 더 해야 하는지 헤아려 보지만 묵은 빚이 많아 앞으로도 까마득하다. 시기에 맞춰 매년 보리를 비롯하여 곡식을 말리는 일을 하면서 아무리 성가셔도 곡식을 쪼아 먹는 새를 열심히 쫓아낸다. 자신의 곡식이 아닌데도 주인의 뭇을 자신의 것처럼 다루는 성실한 태도이다. 집안의 가축을 기를 때도 자신의 가축인 것처럼 정성을 들이기도 한다.

성실한 종은 오랫동안 주인집에서 일을 한 까닭에 가족과 마찬가지로 되어 함께 늙어간다. 늙고 병든 처지를 주인과 종이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저 집안에 출세하는 이가 나타나기만을 바란다. 이 종은 주인 집안의 일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마지막 구에도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소영사’의 고사를 활용하여 종이라 하더라도 신의가 있는 인물의 모습으로 그려내었다. 작품의 인물은 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태도로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개된 작품에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뭇을 해내는 인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목관중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특히 〈늙은 첩〉이나 〈늙은 종〉은 첩과 본부인, 종과 주인이라는 대립적인 구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등장할 수 있는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61) 『餘窩集』 권10, 「櫟社錄」(한국문집총간본), 〈老僕〉.

해결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원인마저 사라지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결과이다. 시적 대상의 노년으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년' 그 자체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담겨 있다. 이는 목만중이 본인의 삶을 관인으로 규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목만중의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시적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다룬 것을 보면 목만중이 서민들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만중은 오랜 시간 관직자로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주시하였으며 시에서도 그들의 삶에 대해 세밀한 관찰력을 표출하였다.<sup>62)</sup> 다만 관직자로서 서민들을 구제와 교화의 대상으로 보아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고발하며 현실에 비판적인 시를 창작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그들의 삶을 삶 자체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만년에 들어서면서 목만중이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변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쩌면 타인에게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거나 낮은 지위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자리에서 제 분수를 지키며 늙어갈 수 있는 것도 일종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보는 목만중의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당에 의탁하여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나무의 무용지용(無用之用)과 연관이 깊다. 결국 궁극적으로 연작시를 통해 목만중은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노인들의 삶을 소개하며,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 이들이 도리어 크게 쓸 곳이 있으며, 모두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역사록」을 통해 노년의 삶을 문학적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목만중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목만중의 노년기 삶을 정리하고, 그가 노년에 창작한 시를 살펴보았다. 목만중은 만년에 지은 시들을 모아 권명을 「역사록(樸社錄)」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장자』의 〈인간세〉에서 역사(樸社)가

62) 목만중의 시에서 드러나는 경제제민 의식에 대해서는 김종하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제목으로서나 열매 나무로서는 쓸모가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리지 않고 그 천수를 누릴 수 있었음을 언급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목만중이 노년의 삶을 무용지용(無用之用)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성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노년의 목만중의 삶이 점희당 안에서 여유롭고 한가한 삶을 보내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이전에 그가 노쇠한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던 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역사록」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목만중이 노년에 지은 시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삶의 변화와 함께 노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목만중은 만년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시들을 창작하였다. 목만중이 노년기에 지은 시들은 이전에 지은 작품들과는 달리 다양한 시체를 활용하거나 희필(戲筆)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목만중의 작시 태도 변화를 잡체시 작품과 ‘노(老) 14편’의 연작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노년에 지은 잡체시 중 잡명시의 수가 많은데, 잡명시는 언어적 기교가 중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적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시체이다. 목만중은 잡명시로 잘 알려진 시체 외에도 <오성체(五聲體)>나 <오음체(五音體)>와 같이 기존 문인들은 시도하지 않은 형태의 잡명시를 짓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목만중의 참신한 발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시적 재능에 자신 있었기에 가능한 창작이다. 이 밖에 목만중은 잡명시 외에 회문시와 오체(吳體)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체를 도입하면서 그 이면에는 만년의 삶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표출하였다. 이들 작품은 노년의 정서와 시체가 조화를 이루어 목만중의 노년기 시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목만중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老) 14편’의 연작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장난삼아 즐기기 위해 지었다고 밝혔으나 그 안에는 각계의 삶에 대한 목만중의 관찰력이 돋보인다. 이 시는 ‘노년의 삶을 소재로 삼았으나 등장인물들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자신이 할 일을 수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노년에 와서 자신의 일을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그려,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목만중이 「역사록」 서문에서도 언급한 무용지용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목만중은 노년기에 「역사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시에서 드러내었다. 특히 다양한 시체를 활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작 정신이 높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는 노년에도 끊임없이 시를 가다듬으며 노력했던 탐구정신의 결과이자, 시재(詩才)가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기에 가능해진 변화이다. 만약 그가 노년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저 쓸모없는 인물로만 치부했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역사록」에 수록된 다양한 양상을 지닌 시작품들은 목만중의 긍정적인 인식의 발로이자 문인으로서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목만중의 노년기 시는 목만중 개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목만중 한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목만중의 노년기 시가 지닌 특징들은 그동안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노년기 문학에 대한 새로운 양상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준다.

## 참 고 문 헌

- 金構, 『觀復齋遺稿』. 한국문집총간 속49, 한국고전번역원 DB.
- 陸萬中, 『餘窩集』. 한국문집총간 속90, 한국고전번역원 DB.
- \_\_\_\_\_, 『餘窩集』. 장서각본.
- 成倪, 『虛白堂集』. 한국문집총간 14, 한국고전번역원 DB.
- 蘇世讓, 『陽谷集』. 한국문집총간 23, 한국고전번역원 DB.
- 吳尙濂, 『燕超齋遺稿』.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 \_\_\_\_\_, 『燕超齋遺稿』. 국립중앙도서관 활자본.
- 尹愔,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 한국고전번역원 DB.
- 李玄錫, 『游齋集』. 한국문집총간 156, 한국고전번역원 DB.
- 李尙迪, 『恩誦堂集續集』. 한국문집총간 312, 한국고전번역원 DB.
- 李獻慶, 『良翁集』. 한국문집총간 234, 한국고전번역원 DB.
- 趙緯韓, 『玄谷集』. 한국문집총간 73, 한국고전번역원 DB.
- 김동준, 『海巖 柳慶種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해암 류경종의 시문학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5권, 2005.
- \_\_\_\_\_,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한시(漢詩)에 나타난 노년(老年)의 일상(日常)과 시적(詩的) 형상(形象)」. 『韓國漢詩研究』 21권, 2013.
- 김은정, 「장유의 잡체시 연구 -북고주의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한시학회』 11권, 2003.
- 김중하, 「餘窩 陸萬中 紀行詩 연구: 經世意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박희인, 「餘窩 陸萬中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혜숙, 「정약용의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와 노년의 양식」. 『민족문학사연구』 41권, 2009.
- \_\_\_\_\_, 「다산 정약용의 노년시(老年詩)」. 『민족문학사연구』 44권, 2010.
- 배규범, 「잡체시(雜體詩)의 범주(範疇)와 현황-불가한시(佛家漢詩)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53권, 2006.
- 백승호, 「18세기 南人 문단의 詩會-蔡濟恭·陸萬中을 중심으로」. 『관아어문논집』 29권, 2004.
- 부유섭, 「17-18세기 중반 근기남인 문단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심경호, 「조선 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31권, 1998.
- 윤재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문예원, 2012.
- 이미진, 「朝鮮中期 雜體詩의 창작배경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39권, 2013a.
- \_\_\_\_\_, 『조선중기 잡체시 창작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b.



- 이새롬, 「陸萬中の 詩會 활동과 詩世界」.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도상, 「잡체시에 대한 일고찰: 조선조 문인의 회문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5권, 1997.
- 정민, 「잡체시, 그 실험적 언어양식」. 『문화예술』 통권 122호, 1989.
- \_\_\_\_\_, 『한시미학산책』. 솔, 2006.
- 황위주, 「한시의 분류기준과 그 적용 양상」. 『대동한문학』 11권, 1999.
- \_\_\_\_\_, 「한시 이야기; 몇 가지 흥미로운 잡체시(雜體詩)」 (1). 『선비문화』 7권, 2005a.
- \_\_\_\_\_, 「한시 이야기; 몇 가지 흥미로운 잡체시(雜體詩)」 (2). 『선비문화』 8권, 2005b.
- 徐師曾, 『詩體明辨』. 昨晟社, 1985.
- 方回 選評, 『瀛奎律髓集評』 中.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中国基本古籍库 DB.

## 국 문 요약

여와(餘窩) 목만중(陸萬中, 1727-1810)은 자신의 문집 『여와집(餘窩集)』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 만년에 지은 작품들을 묶어 「역사록(櫟社錄)」으로 명명하였다. 「역사록」에는 목만중이 78세이던 1804년부터 1810년까지 지은 시작품이 있어, 목만중의 노년기 삶과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 목만중이 만년에 지은 시들을 모아 권명을 「역사록」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역사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역사록」의 「역사(櫟社)」는 『장자』의 〈인간세〉의 고사를 활용한 것으로 역사가 재목으로서나 열매 나무로서는 쓸모가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리지 않고 그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뜻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목만중이 노년의 삶을 무용지용(無用之用)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성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록」 이전에 남긴 시에서 목만중에게 ‘늙음’이 극복해야 할 존재로 묘사된 것과 달리, 「역사록」에 남긴 시에서 ‘늙음’은 그의 삶 자체가 된다. 이처럼 노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과거 정치적·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살았던 삶에서 물러나와 노년에 접회당 안에서 여유롭고 한가한 삶을 보내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였다. 삶의 변화와 함께 노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목만중은 만년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시를 창작하였다. 목만중이 노년기에 지은 시들은 이전에 지은 작품들과는 달리 다양한 시체를 활용하거나 희필(戲筆)이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역사록」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이전 시기에 창작된 작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시들을 중심으로 목만중의 노년기 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목만중의 노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목만중은 다양한 시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만년에 시재(詩才)를 과시하면서 가능해진 과감성이며, 노년에도 끊임없이 시를 가다듬고자 한 노력이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老) 14편’의 연작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장난삼아 즐기기 위해 지었다고 제목에서 밝혔으나 등장인물의 삶 자체와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자신이 할 일을 수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 이는 목만중이 「역사록」 서문에서도 언급한 무용지용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역사록」에 수록된 다양한 양상의 시작품들은 목만중의 긍정적인 인식의 발로이자 문인으로서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목만중의 노년기 시는 목만중 한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목만중의 노년기 시가 지닌 특징들은 노년기 문학에 대한 새로운 양상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준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0. 25.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목만중(Mok Man-jung), 『여와집』(*Yeowajip*), 「역사록」(Yeoksarok), 잡체시(japche poems), 집명시(japmyeong poems), 무용지용(series poem, muyongjiryong)



## Abstracts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Yeowa(餘窩) Mok Man-jung's(睦萬中) Poems in His Old Age: Focusing on Yeoksarok(櫟社錄)

**Lee, Sae-rom**

Yeowa(餘窩) Mok Man-jung(睦萬中, 1727-1810) compiled his poems written in his later years among the poems included in this anthology Yeowajip(餘窩集), and named it Yeoksarok(櫟社錄). Containing his poems written during the period from 1804 when he was 78 years old to 1810, Yeoksarok gives us a glimpse to Yeowa's life and inner thoughts in his old age. The reason for giving the name 'Yeoksarok' to the collection of poems written in his later years is explained in detail in Yeoksarok. 'Yeoksa'(櫟社) in 'Yeoksarok' came from an episode in Chuang Tzu's(莊子) Renjianshi(人間世 - The Human World). Yeoksa, a tree, was useless as wood or fruit but because of its uselessness it could avoid being cut and live out the span of life allotted to it. This implies that Yeowa perceived his life in the old age as muyongjijong(無用之用 - Usefulness of uselessness), and reflected on it positively.

The change in his perception of old age seems to have been possible as he withdrew from the politically and socially complex life in the past and enjoyed a leisurely life at Jeomhee-dang in his old age. With the transition of life, his perception of old age also changed and as a consequence his poems in the late years were different in pattern from the previous ones.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Yeowa's poems written in his old age, focusing on poems, among the works in Yeoksarok, showing a pattern different from that of his previous works, and to discuss Yeowa's perception of old age. As representative poems, this study chose and analyzed japche(雜體 - various style) poems and a series poem Old Age(老) with 14 pieces.

Yeowa revealed that he perceived his life positively and expressed the perception in various poetic styles. This is boldness induced from his exhibition of his poetic talents in his later years, and he made continuous efforts to refine his poems even in the old age. In addition, he wrote series poem Old Age consisting of 14 pieces on peoples from various classes and occupations, he mentioned in the title that he wrote this work for fun, the poem is describing the characters' lives themselves and their attitude of doing their jobs faithfully in their positions. This is connected to Yeowa's perception of muyongjijong that he mentioned in the preface of Yeoksarok.

The poems in various patterns included in Yeoksarok are believed to be the manifestation of Yeowa's positive consciousness and the fruit of his efforts as a literary men.